

김영록 전남지사, 나주 정책 비전 투어

“나주, 한국에너지 수도로 성장시킬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주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허브 육성과 영산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시 정책 비전 투어’에서 “역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나주가 이제는 첨단산업과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빛가람혁신도시를 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육성하고, 나주를 에너지와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태·최명수 전남도의회 의원, 청년,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시장은 환영사에서 “나주는 2000년 역사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는 도시”라며 “영산강을 국내 최대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이 나주에 자리잡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은 ‘풍요로운 땅, 혁신의 천년도시’를 슬로건으로 나주의 9대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국내 최대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르네상스 2.0 추진, 마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목사골 농식품 생태계



2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나주시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등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 등 9대 발전안 제시
“영산강, 국가정원 지정…르네상스 시대 열 것”

구축, 첨단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계획인구 5만 달성, 나주형 교육도시 육성, 전남 서남권을 아우르는 교통망 확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켄텍 클러스터에 300개 에너지 스타트업 창업과 AI데이터센터 구축, 1조2000억 규모 인공지능 연구시설 유치 등이 제시됐다. 또 에너지-전력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과 2030년 ‘세계에너지총회’ 유치를 통해 K-에너지밸리 브랜드가

치를 높인다는 구상도 나왔다. 관광분야는 마한 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나주읍성권 위케이션 활성화, 남도의병역사공원 명소화 전략 등이 제시됐다. 정책현안 토론에서는 과수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세살수장치 지원 확대가 건의됐다.

이동희 배원조정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낙과와 품질 저하 등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연구

를 활용한 냉해 방지 대책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영구 노동력 설치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명제한 개선,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도내 소재 기업 입찰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나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에너지 허브와 영산강 르네상스라는 큰 축으로 연결해 미래도시로 도약시켜겠다”며 “도민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수도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시 ‘미래전략 전담팀’ 공식 출범 국정과제 실현 총력…15개 공약 추진

분야별 5개 분과 구성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

광주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지역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미래전략 전담팀(TF)’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미래전략 전담팀은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8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공약 15개 추진 과제를 정리하고, 국정방향과 연계 가능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광주 미래전략 전담팀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역공약 국정과제 반영 현황 점검, 이행계획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중앙부처-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시민·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협력 방안, 향후 전담팀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공약의 이행은 중앙정부와 국회, 전문가, 시민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이 2일 실국장들과 ‘광주 미래전략 전담팀’ 회의를 하고 있다.

안도길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에 1543억 반영”

내년 정부예산안 전년비 57%↑…노화연구실증센터 등 사업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사진)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에 국비 1543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원료된 옛 전남도청 복원(238.6억원)과 약사암 문화유산지구 정비(4억원) 등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도(980억4000만원) 대비 562억6000만원(57%)이 증가한 셈이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구 산업과 문화 발전을 선도할 10개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국비지원 사업 기획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복합센터 신축(2억원)을 비롯해 △전남대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1.5억원) △신 디지털 노화연구실증센터 구축(6억원) △한강 작가문학 체험공간 조성(1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건립(5억원) △국립역사박물관 건립(10억원) △AI 디지털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지원(10억원) △아시아 스토리 IP 활용 웹툰 제작(12억원) △AI기반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가상 뮤지엄(3억원) △대중화 전시 프로그램 개발(15억원) 사업이다.

안 의원은 역점을 두었던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복합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약 250억원(추정)이 투입되는 지역 핵심사업으로 내년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됐다.

미래먹거리산업 개척분야에서 중점을 둔 신규 사업은 선교지구 임지할 AI 디지털 노화연구실증센터 조성사업이다. 8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노화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거점 산업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강 작가문학 체험공간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광주 원도심을 세력적인 문화 성지로 탐바꿈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산업 분야 정책예산도 반영됐다. AI 디지털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지원(10억원, 총사업비 242억원)도 신규 반영됐고,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사업(42억원, 총사업비 430억원), 광주 전자비 128억원)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1665억원(동남을 구간 222억원)이 반영됐고, 동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총사업비 151억원)에도 14.78억원이 반영됐다.

안 의원은 “무등산 탐방복합센터와 전남대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 등 시민의 숙원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보람된다. 선교지구 노화연구실증센터 설립과 한강 작가 문학 체험공간 조성사업 같은 사업들을 통해 광주 원도심이 미래 산업과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탐바꿈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국회 예산심사와 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람석 교체 완료

1만5076석 등받이·컴퓨터 교체…안정·편의성 향상

광주시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노후 관람석 1만5076석 교체를 완료하고 시민 안전과 관람 편의를 크게 높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4년 구장 준공 이후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좌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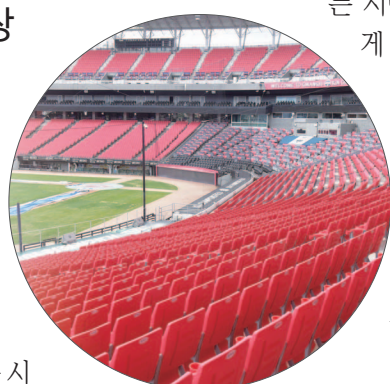
광주시는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 일반 관람석 1만5076석의 좌판·등받이·컴퓨터를 교체했다.

기존 틀(프레임)은 유지하면서 좌판과 등받이를 낱혀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색상과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맞춰 경기장의 익숙한 분위기를 살렸다.

광주시는 프로야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휴경기 없는 날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3월 금형 제작을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갔으며, 여름철에는 근로자 안전수칙을 강화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공사를 이었다.

또 기존 틀(프레임)을 활용해 철거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 단위 업체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합리적인 단가를



확보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노후 관람석 교체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친화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람석 개선 사업은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가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다. 당시 광주시는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석 등 정비를 약속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